

김관영 “내란 동조 의혹 무혐의 받았다”

〈전북자치도지사 예비후보〉

종합특검, 불기소 처분... 金, 이원택 후보 향해 “전북 모욕 정치공세 책임물겠다”

李 “본질은 김 지사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 책임에 대한 논쟁”... 특검 결정에 “유감”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진실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인 이원택 후보를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늦게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내란 부화수행 의혹 직권

남용 관리방해에 의혹, 직무유기 의혹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동조는 없었고 전북도청 폐쇄도 없었다”며 “계엄에 동조한 사실 또한 결코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오늘 진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조사라는 수치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함께 해준 공직자들과 5천여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김관영 개인의 억울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전북

도정과 전북 공직자, 나아가 전북도민 전체를 향한 정치적 모욕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원택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 도정에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고 스스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며 “장차인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지, 전북도정과 공직자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내란 프레임으로 도민

을 모욕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등을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대국민 사기극과 도민 모욕의 정치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사과받을 것은 반드시 사과받고 전북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실은 확인됐고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다시는 거짓말로 전북을 모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도 내란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 관리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7분 동안 다른 질문 없이 내란 관련 질문만 받았고 심층 면접에서도 2시간 넘게 관련 답변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이원택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선거 기간 내 이번 ‘내란 동조 의혹’ 공방이 전북도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의혹 관련 2차 특검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에 대해 2차 특검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의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진실 논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특검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보장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어르신 행복 4대 공약 발표

오는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어르신 건강 강화를 위한 ‘어르신 행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와 농촌의 자연환경이 결합된 도농복합형 실버타운을 조성해 전북을 어르신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영양 관리를 위해 경로당 무상급식을 현재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하고, 반찬 구입 비용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아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의료복지 강화 의지도 강조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장과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원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과 전북의 오늘은 어르신들의 땀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결실”이라며 “어버이날에 드린 약속을 도정 핵심과제로 삼아 꼼꼼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캠프에 안호영계 합류 ‘용광로 선대위’

환영식 열고 원팀 체제 구축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안호영 의원 측 핵심 참모진이 대거 합류하면서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졌다.

김관영 예비후보 측은 8일 오전 전주 완산구 효천지구 선거사무소에서 안호영 의원 캠프 핵심 관계자 20명에 대한 환영식을 열고 본격적인 원팀 체제 구축에 나섰다.

이날 합류한 인사는 김호서 선대본부장, 김영주 상황실장, 김진경 공보단장 등으로, 김관영 캠프는 아들에게

상황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기며 선거 전면에 배치했다.

김관영 예비후보와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룬 바 있다. 양측은 지난달 2일 정책연대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으나, 김 예비후보를 둘러싼 중앙당 윤리감찰이 시작되면서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이후 안 의원은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 의원은 최종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에 1% 차이로 패했다. 안 의원은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주 군산·김제·부안을 출마 박지원 최고위원 “더 배우고 더 만나 의견 듣겠다”

“급하게 선거 준비 하게 되면서 공부해야 할 부분 많아
호남에서 기반 잡고 성장해 보라는 의미... 계속 노력해야”

오는 6·3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지원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공천 배경과 지역 현안, 향후 선거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최고위원은 지역 연고 부족 논란과 전라공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지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지역민과 더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급하게 선거 준비를 하게 되면서 김제·부안 군산 대야·회현 지역에 대해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며 “재만금과 해양관광, 신재생에너지, RE100 산업단지 같은 큰 흐름은 알고 있지만 농업과 어업 정책처럼 주민 삶과 직결된 세부 현안은 현장에서 더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제는 자신의 처가가 있는 지역이라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부안과 군산 회현·대야 지역은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배우고 지역을 자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밝혔다.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내놨다. 박 최고위원은 “전라 공천은 전라 공천 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고위원 회의와는 별개로 움직인다”며 “지역 기사로 허버링 정도만 접했을 뿐 직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 지역 출마 의사를 물어왔고, 저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대야 시인 고집할 생각은 없었다. 당이 필요한 자리라면 어디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해왔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외부 인사 공천 비판에 대해서는 “김제 사



람만 공천해야 한다고 하면 부안 군민과 군산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미래 정치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익산에서 태어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미국 생활도 했고, 초·중·고교는 전주에서 다녔다”며 “전북 곳곳을 삶의 터전처럼 살아온 만큼 전북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 총선 때 지역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이 저를 2년짜리 정치인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호남에서 기반을 잡고 성장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현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에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전략 공천이 당원 주권 가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보궐 선거는 시기와 상황상 전략 공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당 내부에서 성장한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당원주권의 한 모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최고위원은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이 놓여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결국 더 넓은 자세로 배우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며 “김제·부안·군산을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경청하며 농촌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 말미에서 “후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와 지역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역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김제·부안·군산의 미래 비전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고향 주민의 명령보다 높은 권위는 없다”

김종희 전 의원, 무소속 군산·김제·부안을 재선거 도전

김종희 전 국회의원이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제·부안·군산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고향에서 벌어지는 것은 공천이 아니라 횡포”라며 “고향의 이름도 모르는 인물들을 중앙 정치의 논리로 포장해 지역에 내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을 위한 공천인지, 당 지도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공천인지 묻고 싶다”며 “권력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낙하산은 우리 고향의 깊은 토양에 뿌리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해 “김제 농민의 흙냄새와 부안 어민의 짭짤함, 군산 시민의 강인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고향 주민의 명령 보



다 높은 권위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김제 통합 문제에 대해 반대 입

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지역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호남에서 민주당 조직력이 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무소속 당선이 쉽지 않은 것도 안다”면서도 “공천 참사를 보면서 침묵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영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공천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단일화나 통합 논의는 없다”며 “높고 바른 방향에서 함께하자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선거행보 본격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정읍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8일 오후 1시 20분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지난 4년은 정읍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정읍의 더 큰 미래를 완성해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민선 8기 정읍시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선 9기에서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태인 신규산업단지 33만평 조성 및 첨단산업 기반 확대 △청년 반값 주택 공급 및 정주여건 개선 △아이 성장 지원 강화 △동진강



수변공원 및 내장저수지와 정읍천 개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정읍형 복합 컨벤션센터와 거점형 체육관 조성 △햇빛연금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직후 정읍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신문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이후 충렬사 앞 잔디광장에서 언론인,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8일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순창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최 군수는 별도의 출마선언 없이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중심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의 공백 없는 추진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후보 등록을 늦추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선 8기 동안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3년 연속 인구 증가,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순창장류축제 글로벌화 추진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과 변화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비전으로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제시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 골목상권 활력수당, 자녀 학원비 지원 반값 비로, 반값 주택,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 군수는 선거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군민과 직접성 있게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은 오는 5월 16일 순창을 뒤탈리아 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순창=이양원기자